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최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한참 지나고 보면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사회를 주도해 가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송구스럽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은 분들, 그 유가족들, 몸을 다치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명예롭게 대우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깃발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역사에서 정치적인 흐름이 엇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옛날에 중요한 일들이 어느 때에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옛날 공로를 흔들고 훼손하는 것 같고 그러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섭섭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서로 마주서서 싸우고 심하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했

던 경우도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테이블에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한길로만 똑바로 가지 않고 굽이치고 세상이 뒤집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길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바치는 분들입니다. 대의명분이라는 깃발이 2000년 3000년 계속 걸리는 깃발이 있는가하면 사회가 변하면서 깃발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은 매번 그 대의에 충실히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중세유럽에는 교회의 깃발이 국가와 사람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 깃발 가지고는 국가를 위해 충성한 사람도 교회에 배반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왕조시대를 거쳐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독립국가, 군사정권시대, 시민혁명 과정을 거쳐서 그때마다 큰 틀에 있어서의 대의의 깃발이 따로 있더라도 작은 깃발이 그때그때 바뀌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은 매번 그 대의에 충실히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부정하고 갈등하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때나 양지쪽을 찾고 이익이 있는 곳을 쫓고 위험을 피해 뒤로 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항상 그 시대의 대의에 충실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나서고 고초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깃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그 시대의 대의에 충실하고 헌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파병을 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안한다 하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노란 깃발을 들고 나와서 떠들던

사람의 일부가 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해서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한국 국민의 역량이 전체의 다양한 주장을 다 담아서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혜와 역량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나 파병으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 쪽이 이기고 진 결과도 아니고 파병을 했다고 반드시 미국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라크라든지 아랍세계에 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역사에서 겪어왔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파병도 중요하지만 하든 안하든 이미 결정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것을 통합된 의견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있으면 그 밖에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역사에서 겪어왔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독립유공자, 전쟁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운동 4.19를 비롯해 여러 공로 가진 분들 함께 잘 모시고 자랑스럽게 생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방법은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립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고 국가에 기여하는 분들이 최고의 효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부모를 잘 모시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효도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 노력에 보답하고 실제 생활에서도 소외됨이나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현충일인데 참배하고 대통령 직무에 다시 돌아가면 소홀함이 없는지 챙기고 안주섭 장관과 함께 고칠 것은 고치고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